

## [보도자료] 쿠팡, 국내 중소기업과 ‘에너지 절약 기획전’ 고객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

2026. 3. 25.



- 에너지 절약 상품 약 1,000종 4월 한 달간 ‘착한상점’ 전용 할인관 운영
- 태양광 보조배터리·절전용품 등 일상 속 체감도 높은 실속형 상품 할인
- 참여 중소기업인 대상 판로 확대 및 메인 페이지 광고 노출 전폭 지원

2026. 03. 25. 서울 – 쿠팡이 최근 고조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객과 함께하는 할인 행사를 연다.

쿠팡은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자사 중소기업인 상생 전문관인 ‘착한상점’ 내에서 ‘쿠팡에서 시작하는 에너지 절약 장보기’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 흐름에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쿠팡은 일상 속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상품 약 1,000종을 엄선해 선보인다. 주요 상품으로는 ▲태양광 무선 보조배터리 ▲휴대용 자가발전 랜턴 ▲절전 멀티탭 ▲절수 샤워헤드 ▲난방텐트 등이 있으며, 고객들은 이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쿠팡은 풀필먼트와 배송 인프라 등 로켓배송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 정책을 강화해 왔다. 2021년 전기화물차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대화용 친환경 프레스백 도입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참여 등 물류부터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는 5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녹색소비주간 기획전’에도 참여해 이러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쿠팡은 에너지 절약 제품과 녹색인증 제품 소비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고객들이 일상의 소비 선택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 ‘착한상점’은 중소상공인 및 친환경 경영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전용 페이지로, 이번 기획전을 통해 에너지 절약 상품을 제조하는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도 함께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